

健康診断検査는

우리나라에서 건강진단검사는 주로 각종 질환을 대상으로 짜여져 실시하게 된다.
그외 신생아에서 선천적인 질환이 있는지를 보기위한 건강진단검사의 개발도 우리나라에서 필요하고 노인연령층에서 암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의 개발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건강종합진단검사의 목적은 각종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조 한 익



1. 질병은 초기에 발견되어야 한다.

생명을 앗아가는 많은 질병들이 초기에 발견되었으면 치유될 수 있는 것들이다. 당뇨병을 예를 들면 혈당이 상승됨으로 인하여 혈관 질환, 안질환, 신경계질환등이 병발되어 위험하게 되는 것이다. 당뇨병의 초기에

이러한 병발증이 생기기 전에 발견하여 그 진행을 막을 수 있으면 당뇨병 때문에 생명이 위험한 일은 없다.

빈혈을 일으키는 질환인 경우에 서서히 진행되는 빈혈은 빈혈정도가 상당히 심해질때까지 환자자신도 느끼지 못하는 수가 있다. 그래서 빈혈이 심해져 의사를 찾게될 때쯤되면 아주 심해져 치료되는데 시일이 오래 걸리게 된다.

질병을 조기에 발견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시되는 경우가 “암”이다. 악성암인 경우에 조기에 발견하면 완전치유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하여 암이 진행되어 발견되면 틀림없이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이다.

건강진단검사를 하는 목적이 이들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2. 어떤 질환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가?

건강진단에서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검사할 수는 없다. 또 어떤 질병은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그래서 건강진단검사에 이용되는 검사종목은 진단대상군에 비교적 발생빈도가 많은 질환을 목표로 하게 된다.

HBsAg검사는 B형간염 항원검사이

왜 필요한가 ?

다. B형간염은 우리나라에서 약10%가 보균자이거나 간염을 앓고있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0.5% 이하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는 항원검사가 건강진단검사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지만 서양에서는 그렇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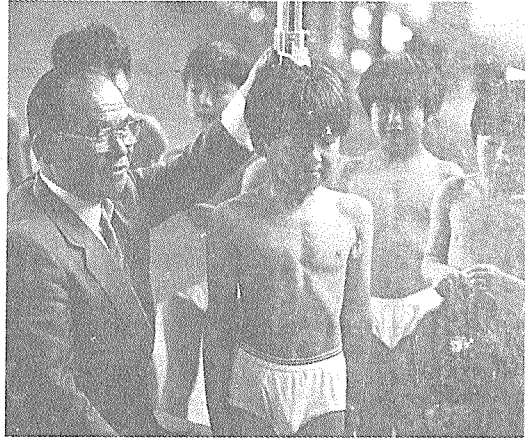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흔한 질병으로는 B형간염, 당뇨병, 고혈압, 신질환, 폐결핵 그리고 여자에서 철결핍성빈혈 등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건강진단검사는 주로 이들 질환을 대상으로 짜여져 실시하게 된다.

그외 신생아에서 선천적인 질환이 있는지를 보기위한 건강진단검사의 개발도 우리나라에서 필요하고 노인연령층에서 암의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의 개발도 필요하다. 또한 부갑상선질환이나 갑상선질환도 그 발생빈도가 높아 이들을 대상으로 건강진단검사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건강진단검사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질병을 발견하는 효율성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3. 건강진단검사가 실제로 얼마나 질병을 발견하는가?

최근에 건강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 각종 질환을 조기에 치료하면 대부분 생명이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보면 고혈압으로 진단된 것이 약 8%이었고 빈혈이 남자 0.79%, 여자 4.87%이었다. 당뇨병이 의심스러운 경우는 1.72%이었고, 간염의 현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3.25%이었다. 폐결핵이 확인된 것이 0.72%였다.

이렇게 발견된 질환은 치료를 조기에 할 수 있어 대부분 생명에 영향을 주거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 외에도 특정질병으로 확진되지는 않았지만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경우도 상당수 있어 이런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경고의 효과가 있어 음식 등 일상생활에 주의할



66 질병발생이 나이·성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곤란하지만 대체로 1년에 1회의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가능하면 자기생일에 가까운 날짜마다 건강진단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99

수 있도록하여 질병발생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4. 얼마나 자주 건강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는가?

질병발생이 나이·성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곤란하지만 대체로 1년에 1회의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나이에 따라 청년기에는 2년마다, 장년기에는 1년마다 검진받도록 하기도하나 뚜렷한 근거에 의한 주장은 아니다. 가능하면 자기 생일에 가까운 날짜마다 건강진단을 받아보도록 하는 것이 건강진단을 습관화되고 일반화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5. 어떤 기관에서 건강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가?

건강진단은 주로 임상병리검사가 주를

이루고 그외에 X-선촬영, 의사에 의한 진찰등으로 실시된다. 가장 객관적인 결과를 주는것이 임상병리검사와 X-선촬영이다. 그러므로 이들 두분야를 책임지고 해나갈 수 있는 인력이 구비된 기관이어야 한다. 즉 임상병리전문의와 진단방사선전문의가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

검사를 했다고 해서 모두 그 결과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어떤 시설을 갖춘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것이 그 시설을 이용하여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들이 있는 기관이나가 더 중요하다.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믿을 수 있는 기관들이 건강진단검사를 수행하고 있어 질병의 조기진단을 가능하게 하여 보건 의료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필자=서울의대 임상병리과·의박)